

[에버렛 스완슨이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1955-11-25

일리노이주 시카고

집 없는 어린이들의 친구 여러분,

사랑하는 구세주의 이름으로 정중한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시카고에서 예배를 드린 덕분에 가족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놀라운 기쁨과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동생 가족과 어머니를 초대했고, 그들은 80킬로를 달려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휘튼 칼리지(Wheaton College)의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한국인 스티븐 현(Mr. Stephen Hyun) 씨가 함께 했습니다. 그는 지난 6월 한국에서 열린 도시 전체 집회에서 제 통역사였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에 온 지 이제 겨우 10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첫 추수감사절이었고, 미국의 모든 것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 위대하고, 풍부하고, 풍요하고, 훌륭합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추수감사절에 두 칸의 군용 오두막에 가득 찬 600명의 한국 군인들과 바깥의 차가운 빙속에서 있는 200명에게 설교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천 명의 포로들에게, 밤에는 18,000명의 군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계절에도 먼 셔츠만 걸치고 얼어붙은 땅 위를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저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누더기에 마대 자루 같은 것만 덮은 채 남의 집 문 앞이나 거리에서 자고 있는 거지 소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고, 제 아이들이 잘 먹고, 옷을 입고, 집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있는 이 가난한, 집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2개의 보육원과 소년들을 위한 시설에서 약 250명의 소년, 소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 텐트에서 180명의 거지 소년을 돌보고 있으며, 자금과 공간이 허락하는 한 어린이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따뜻한 구호 의복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봄비긴 하지만) 따뜻한 건물에서 생활하고, 매일 학교에 다니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그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을 대신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모두 저를 미국인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지지자이자 후원자인 여러분이 미국인 어머니이자 아버지이며 형제·자매입니다.

이 계절을 맞아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들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표현인 크리스마스 헌금에 대해서입니다. 비록 제 편지가 늦어지긴 했지만, 가능한 빨리 응답해 주신다면 어린이들 모두에게 매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물건을 사서 보내는 것은 시간상 조금 늦었기 때문에, 대구 선교부를 통해 보내는 돈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곳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을 승인합니다. 이 돈은 어리석고 쓸모없는 장난감이 아닌 따뜻한 속옷, 장갑, 모자 및 신발을 구매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물론 사탕, 쿠키, 과일 등과 같은 약간의 간식도 있을 것입니다.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딸감을 구입할 돈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선 매우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모든 기금이 이러한 목적에 사용될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인플레이션과 환율 하락으로 인해 가능하다면 어린이들의 각 후원자에게 매월 최소 5달러를 보내 주시기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금액을 보내실 수 없다면(일부는 더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가능하신 만큼 계속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어린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고, 그동안 해오신 일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며칠 내로 인쇄소에서 약 125장의 사진이 포함된 보고서를 받아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화보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동봉된 크리스마스 봉투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소가 적힌 우편 봉투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 사역을 위한 새로운 패킷을 받게 될 것입니다(매월 기부금에 대한 봉투 1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17)

그분의 복된 이름과 섬김으로 문안드리며,

에버렛 F. 스완슨 올림